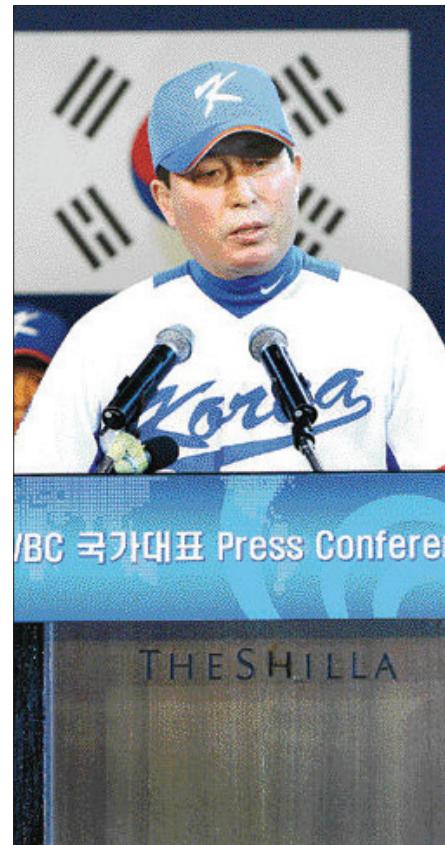




야구 대표팀 달라진 유니폼 입고 4강 파이팅!

8일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출정식 및 유니폼 발표회에서 김인식 감독과 선수들이 피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파로 WBC 4강 간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김인식 감독 “김동주 대신 이범호”… 박찬호·이승엽 해외파 불참

김인식(사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감독은 8일 32명 후보선수 선정과 관련, 일본진출 문제로 신변이 정리되지 않은 두산 베어스 김동주를 빼고 한화 이글스 이범호를 대신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WBC 대표팀 출정식에 참석, “2차 엔트리 32명에 포함된 김동주로부터 참가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라며 “김동주의 자리에 한화 이범호가 들어오게 됐다. 이범호는 애

초 1차 엔트리 45명안에 들어가 있었던 선수”라고 설명했다.

또 김 감독은 1월 10일까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제출하는 예비엔트리 45명에 KIA타이거즈 타자 장성호가 대신 선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파 선수들의 WBC 참가 여부와 관련, “박찬호는 필리델피아 필리스와 계약은 했지만 WBC 참석 여부에 대해서 최종 통보가 없었다”라며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

츠의) 이승엽도 본인 개인 사정으로 (참가 가능) 점점 회박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우리 팀의 출사표는 해외파 선수들의 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 자리에 있는 선수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찬호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주신수, 이승엽 그리고 김동주가 불참했다.

/연합뉴스

WBC 상금 얼마나 될까?

우승 팬 최대 340만달러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하면 340만달러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8일 발표한 WBC 상금 규모에 따르면 1라운드(16강전), 2라운드(8강전)를 모두 1위로 통해 정상에 오르는 국가는 수입이 340

만달러(47%)으로 나눴다.

순수 수익금은 대회 전 합의에 따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에 각각 17.5%, 일본에 7%, 한국과 국제야구 연맹(IBAF)이 5%씩 나눠 가졌다. 상금은 우승팀 10%, 준우승팀 7%, 4강 팀 5%씩 배분됐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이 가져갈 순수 수익금 비율을 각각 9%와 12%로 늘리고 상금도 대폭 올려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나라가 돈보따리를 들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표팀은 1천 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조대 대회에서 순수 수익금 5%와 4강 진출 상금 5% 등 전체 수익의 10%인 150만달러를 받았다. 우승팀 일본은 255만달러를 벌었다.

2라운드에서는 9회 이후 10점차, 5회 이후 15점 차가 나면 골드게임을 인정하고 동률팀이 나오면 동률팀 간 승자승-이닝당 최소 실점-이닝당 최소 자책점-팀 타율-제비뽑기 순으로 상위팀을 정한다.

WBC 조직위원회는 상금제도와 순수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모두 바꿨다. KBO 관계자는 “WBC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높은 투구수 제한 규정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WBC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3년전 잘못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한국산 핵잠’ 김병현 1회 대회 일본전 실수 만회 다짐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30·사진)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3년 전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병현은 8일 종로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WBC 대표팀 유니폼 발표회에 입장용(33·야쿠르트 스왈로스)과 해외파 선수를 대표해 참석, 모처럼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미국프로야구에서 팀을 구하지 못해 1년을 끊은 김병현은 “공을 안 던져봐 현재 정확한 컨디션은 알 수 없다. 대회가 한 달 좀 넘게 남았기에 열심히 해야겠다. 앞으로 거취는 미국에 들어가 훈련을 계속 해봐

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김인식 대표팀 감독님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미국 하와이 대표팀 합숙 훈련에 합류할지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할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곧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김병현은 ‘개인적인 동기’로 WBC 참가를 강력하게 바랐다고 소개했다.

개인적인 동기는 WBC에서 호투로 메이저리그에서 새 팀을 구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측면과 초대 대회에서 당한 치욕을 되갚겠다는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

김병현은 “1회 대회 때 일본과 4강전에서

실수라면 실수이고 실력이 모자라서 후쿠도메 고스케(시카고 컵스)에게 홈런을 맞았다면 다시는 그런 위기를 만들지 않고자 참가하고 싶었다”고 답답히 말했다. “지난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다 운동을 막상 하려니까 힘들었다”는 김병현은 “2~3개월 유연성 운동을 했고 무너졌던 투구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치중했다. 공을 많이 던지지 않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열흘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임창용은 “초대 대회 때 몸이 좋지 않아 나갈 수 없었다. 이번에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승하고 싶다. 좋은 선수들이 모였기에 정말 열심히 해 성적을 냈으면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수원 삼성 vs 포항 스텔러스… 9개월 대장정 돌입

한국실업축구연맹은 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08년 결산이사회와 2009년 내셔널리그 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해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또 지난해 연말 새 회장으로 선출된 송재병(61) 회장 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드는 내셔널리그는 한국축구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신생팀 창단으로 축구 저변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축구계 원로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프로축구 정규시즌이 3월 7일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수원 삼성과 FA컵 우승팀 포항 스텔러스 간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실무위원회에서 K-리그와 캠페인 운영방식을 확장하고 오는 13일 경기 일정과 관련한 대진 추첨을 하기로 했다.

정규리그는 신생팀 강원FC의 참가로 ‘15

구단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종전 26경기보

다 두 경기 많은 팀당 28경기씩을 치른다. 총 30라운드로 주말마다 7경기가 열리는 데 한 팀은 부득이 칠 수밖에 없다.

컵대회는 대회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준다. 올해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참가팀이 K-리그 1~3위(수원, 서울, 울산)와 FA컵 챔피언(포항) 등 네 팀으로 확대되면서 나머지 11개 팀으로 두 개조를 편성했다.

지난해 K-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A조(홀

수)에서 성남, 인천, 전남, 대구, 대전, 강원 FC가 맞붙고 B조(싹수)에서는 전북, 경남, 제주, 부산, 광주가 격돌한다. ‘15구단’인 강원FC는 6개 팀이 있는 A조에서 치열한 경쟁을 끓어야 한다. 컵대회는 3월 25일 킥오프되는데 상대팀은 추첨으로 결정된다.

A, B조 상위 2개 팀과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4개 팀이 8강 토너먼트부터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자를 가리는 게 가장 눈에 띈다.

지난해 6강부터 단판 승부를 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결승까지 모두 마치면 총 39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FA자격 스트라이커 신영록
러 톰스코 구단과 1년 계약



해외진출 추진 물의 염기훈
벌금 2,000만원 징징계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최근 구단과 동의 없이 해외 팀과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염기훈(26·사진)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징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울산은 “7일 오후 구단 상법위원회를 열고 염기훈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염기훈은 지난달 중순 구단의 허락없이 영국으로 출국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고 귀국했다.

염기훈은 울산과 2010년 말까지 계약해 구단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

울산은 “상별위에서는 염기훈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위반했다는 점과 이번 사안이 타 구단과 선수 간 계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K-리그 3월 7일 개막전

한국실업축구연맹
송재병 회장 취임

한국실업축구연맹은 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08년 결산이사회와 2009년 내셔널리그 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해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또 지난해 연말 새 회장으로 선출된 송재병(61) 회장 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드는 내셔널리그는 한국축구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신생팀 창단으로 축구 저변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축구계 원로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규리그는 신생팀 강원FC의 참가로 ‘15

구단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종전 26경기보

다 두 경기 많은 팀당 28경기씩을 치른다. 총 30라운드로 주말마다 7경기가 열리는 데 한 팀은 부득이 칠 수밖에 없다.

컵대회는 대회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준다. 올해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참가팀이 K-리그 1~3위(수원, 서울, 울산)와 FA컵 챔피언(포항) 등 네 팀으로 확대되면서 나머지 11개 팀으로 두 개조를 편성했다.

지난해 6강부터 단판 승부를 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결승까지 모두 마치면 총 39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신영록이 입단하게 될 톰스코는 지난 시즌 러시아리그에서 16개 팀 가운데 13위를 차지한 중하위권팀이므로 지난 1994~1998년까지 K-리그 부천SK(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발레리 니폴니시(66) 감독이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